

# 코웨이, 국제표준·품질환경 분야 인증 갱신

20년 넘게 ISO 9001·14001 인증



코웨이는 독일계 시험인증기관인 TUV SUD코리아로부터 ISO 9001, 14001 인증을 갱신·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TUV SUD는 150년 이상의 역사와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이다.

코웨이는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ISO 9001, 14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20년 넘게 재인증에 성공하며 품질 및 환경 경영 수준을 높여왔다.

ISO9001,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제정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규격이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때 품질과 환경경영시스템이 규격 요구 조건에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코웨이는 '신제품 품질 검증체계'를 바탕으로 신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신뢰성 및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 시험 규격을 구축해 제품이나 부품의 문제

점을 찾아내는 검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코웨이는 친환경 사업장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LED,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고효율 설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웨이 정선용 TQA 센터장은 "코웨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 신뢰성, 안전성, 환경성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 인증, 화학물질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고객 신뢰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올해 대입 누구에게 유리할까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20개 대학들이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두고 전형 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3 재학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주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출결과 봉사 등 교과 외 영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 전형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는 대신, 학교 수업이 사실상 파행 운영된 점을 감안해 정성평가에서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더구나 대다수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재학생들의 고충을 서류평가와 면접 등에서 감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여러 차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3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한 것과는 온도차가 상당하다. 교육부가 고3 민심을 살피는 와중에도 4년제 대학

입학관련처장 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대학별 대입전형 방식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많은 걸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재학생도 적지 않을 듯 하다.

사실 코로나19로 재학생 못지 않게 재수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러 차례 학원과 독서실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교 교실 수업뿐 아니라 학원 수업도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로 입시에서 누가 더 불리해지고 유리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더 노력한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재수생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최근 10년간 수능 난이도에 따른 재수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출제된 경우 오히려 재수생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고, 시험 난이도와 재수생 유불리는 불규칙한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선불리 이것저것 해 주겠다고 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hys@

# 동원F&B, 必환경 경영... 친환경 캠페인 '에코챌린지'

플라스틱 166t 감축·친환경 포장재 사용



동원F&B가 전사적 친환경 캠페인 '에코챌린지'를 통해 이달부터 필(必)환경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에코챌린지'는 '5R(Reduce, Replace, Redesign, Recycle, Restart)'의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실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전사적 경영방침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원F&B의 사내 캠페인이다. 임직원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각 사업부별 사업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늘린다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내 프로젝트가 주축이 돼 시작됐다.

동원F&B는 유가공, 상온 HMR, 냉동식품 등 자사에서 생산하는 식품 전반의 포장재를 줄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연간 감축 목표는 플라스틱 166t, 종이 211t으로 각각 500ml 생수병 1100만개, A4 용지 4200만장에 달하는 양이다. 포장재 개별 제품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포장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의 전략으로 전체 사업부가 동참해 경영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원F&B는 지난 3월 출시한 국내 최초의 열린 샘플 보냉재 '동원샘물 프레쉬'의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원샘물 프레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아이스팩과 달리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얼려 보냉재로 활용하게 한 제품이다.

동원샘물 페트병은 플라스틱 저장화를 지속해 페트병의 무게를 12.9% 줄였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측정 기준으로 연간 소나무 837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이런 노력 덕분에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오늘의 운세 7월 8일 (음 5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일의 마무리는 끝까지 완수. **48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이 필요. **60년생**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분. **84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발걸음 가늠이 빠진 사람이 없다.
- 37년생** 투자나 매매는 불리하니 다음 기회에. **49년생**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행운이 있다. **61년생** 이혼이 결국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73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85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 38년생** 고집을 부리면 가족도 외면하게 된다. **50년생** 일이 너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 **62년생**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 **74년생** 더도 말고 오물만 같으면 좋겠다. **86년생** 급하게 서둘러서 후회가 막급이다.
- 39년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51년생**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해라. **63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5년생** 재워와 불화는 대화로 풀려라. **87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
- 40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는 천천히 쟁겨라. **52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 **6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76년생** 두루 베꼈던 일이 손조롭게 해결. **88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야.
- 41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53년생**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라. **65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77년생**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니 마음을 다잡을 때. **89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능력도 최고조라 행복.

- 42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 **54년생** 치과진료는 늦추지 말고 바로 받아라. **66년생** 새로운 것이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라. **78년생** 상사의 뜻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내지 마라. **90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가 성공.
- 43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잘 해결. **55년생** 모든 일은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79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91년생**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 44년생** 외출을 하면 행운이 따른다. **56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6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잘못하면 망신 수. **80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하라. **92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 45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리는 날. **57년생** 금전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있다. **69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81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아 원하던 것을 이루어낸다. **93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
- 46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58년생** 된다. 된다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0년생**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82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을 본다. **94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 47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행동. **59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라. **7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3년생** 양보다 질을 따져보고 결정. **95년생** 지출이 많으니 재할용으로 아껴라.



# 김상희의四季 출입문과 재물

사업을 시작하며 사무실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마음이 되곤 한다. 일이 잘 풀리고 재물이 가득 들어오길 고대한다. 발복하는 운세를 이끌어 와야 한다.

사무실을 내면 우선 신경 쓰는 것이 인테리어이다. 일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안하게 공간을 꾸민다. 의자와 책상도 좋은 것으로 들여놓는다. 일하는 공간에 따라 업무 능력이 달라지니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공간을 구성할 때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사무실 출입문 위치가 그것이다.

운을 끌어오는 풍수를 생각한다면 출입문의 위치와 방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위치는 문으로 들어올 때 내부가 가장 넓게 보이는 위치를 택하는 게 좋다. 북도로 나가는 중앙보다 귀퉁이 부분에 출입문이 있으면 사무실이 더 넓게 보인다.

문이 사무실 쪽보다 바깥쪽으로 열리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출입문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하는 게 경영자 책상 위치이다. 책상 배치는 오행의 상생 구도를 따르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순환되어 길하다. 반면 출입문이 동쪽에 있는데 경영자 책상을 서쪽으로 하면 오행이 상극의 관계가 된다.

이런 배치는 죽은 땅이 되는 격으로 제품을 팔 때 난관을 만난다. 북쪽에 출입문이 있고 동쪽으로 책상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물에 의해 흙이 쓸려 내려가는 오행의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많은 자금을 들여 사업을 벌이는 건 더 큰 재물을 벌어들이고 흥하는 게 목표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흥망이 달린 일이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소소한 풍수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 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9		8
	1	5		7		
			1	4	2	
	2			8		3
	8					1
6			7			2
		7	5	3		
			9		4	5
	9		8	2		6

8		A	9	3	5		2	1	
7				4	8			5	
		C		6			9		
	A	3		B			1		C
	5	4	A		9	8		3	
	9			2			5	7	4
2	8	6				C		B	
C		9	3			1	A	8	
4		B			2	7	9		
			8			3	6		
	3			4	5			9	
	4	1		C	A	7	B		5

9	L	E	Z	L	8	7	6	S
Z	S	7	9	Z	6	8	E	L
8	6	L	E	7	S	L	9	Z
7	Z	8	L	E	Z	6	S	9
L	L	6	S	7	Z	E	8	7
E	9	S	8	6	7	L	Z	L
S	E	Z	7	8	L	9	Z	6
6	7	9	Z	Z	E	S	L	8
L	8	Z	6	S	9	Z	7	E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 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6호